

잘나가는 기업의 단골메뉴였던 주식 분할

주식 분할(stock split)은 말 그대로 주식 1주를 여러 개의 주식으로 쪼개는(split) 것을 뜻한다. 만약 기업이 4 대 1의 주식 분할을 발표하면, 기존 주주는 3주를 추가로 더 받게 된다. 원래 400달러에 거래되던 주식은 분할 후에는 100달러에 거래 되게 된다. 이번 분할을 통해 테슬라와 애플의 주가는 각각 5분의 1, 4분의 1로 낮아졌다. 한국에서는 '액면 분할'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다. 미국처럼 액면가가 없는 주식을 쪼개면 주식 분할, 한국처럼 액면가가 있는 주식을 쪼개면 액면 분할이라고 부른다.

주식 분할은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5만원권 1장을 주고 1만원권 5장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리다. 당연히 시가총액에도 변화가 없다. 그럼에도 테슬라와 애플이 주식 분할에 나선 데는 높아진 주가가 소액 투자자들의 투자를 막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주식을 쪼개서 주당 가격을 낮추면 심리적 투자 저항선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게 소액 투자자들의 풍부한 유동성을 흡수해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구상이다. '주식 분할' → 더 많은 매수세 유입 → 주가 상승'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특히 최근엔 세계적으로 개미투자자의 활약이 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주식 분할로) 주당 가격이 내려가면 개인투자자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

미국주식 전문가들 중에 액면분할, 액면병합이라는 말을 스스로없이 자주하는데 한국주식은 액면가가 있지만 미국주식은 액면가가 없다. 그래서 정확하게 미국주식은 주식분할, 주식병합이라고 해야 한다.

주식 액면분할의 예로 삼성전자를 들 수 있으며 주식 액면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한 후 정관을 개정하고 ~~시행일~~ ^자을 정해 액면분할 전 주식을 거래정지시킨 후 주식을 회수한 후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교부합니다.

액면분할하면 발행된 주식수가 액면분할 비율에 따라서 늘어나고 ^자 주식 1주의 가격이 낮아진 것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자본금, 자본구조, 지분구조, 시가총액 등 전혀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액면분할 후에 주가가 변한다면 시가총액에는 차이가 생기겠지만 이론상으로는 액면분할이 변경시키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